

독일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장 일 순*

- I. 서 론
- II.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문제
- III. 청소년연구에 있어서의 이론인 정치인 그리고 사회과학자간의 상호작용
- IV. 청소년연구의 제도적장치와 청소년정책
- V. 연구내용 및 경향
- VI. 요약 및 결론

I. 서 론

독일에 있어서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다른 나라에서 보다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유명한 연구도서 관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harvard의 Widener Library의 청소년연구에 대한 보유 간행물중에서 독일의, 간행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Allerbeck과 Hoag에 의해 밝혀진 것은 바로 이를 실증한다 하겠다.¹⁾ 더

우기 「국제사회학회」에 의해 발행되는 Journal “Current Sociology”²⁾를 위해 쓰여진 국제 청소년 연구의 현황에 대한 개관이 독일 청년사회학자인 Allerbeck, K.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2차대전 이후의 많은 청소년연구는 독일의 그때 그때의 현실정치에 크게 관계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들어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에 “청소년”에 관한 주제가 중요한 문제로 자주 제시된다는 것은 독일에서 국가정책과 청소년 연구간의 정치실용적인 면을 나타낸다 하겠다.

물론 독일은 역사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의 청소년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적인 지원하에 체계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사회학과 부교수)

1) Allerbeck, K. & Hoag, W.J.(1985) : *Jugend ohne Zukunft?* München, p.9

2) Rosenmayr, L. & Allerbeck, K.(1979) : Youth and Society. *Current Sociology* . Vol. 27. No 2/3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사회과학자들간의 밀접한 상호작용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규정에 대한 여러 관점과 청소년연구에 있어서의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사회과학자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비롯해서 청소년연구를 위한 여러 학문들의 제도적인 정착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중요한 연구내용 및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II.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문제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특히 연령의 규정에 대한 문제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사용한 청소년의 연령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Günther³⁾에 의해 이루어진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세계상”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그는 14~19세의 연령층을 택하였으며 Allerbeck과 Hoag⁴⁾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15~19세의 연령층을, 그리고 “Psydata”조사연구소에는 독일 Shell회사의 청소년학술재단의 청탁을 받아 실시한 청소년 연구조사에서 15~24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독일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그 연령층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 *jugend* 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곧 아동의 사회적 역할을 벗어나 성인의 사회적 역할로 이어지게 되는 한 과정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독일과 같은 대부분의 고도의 선진사회에서 이 과정은 오랜 교육기간으로 인해 더욱 길어짐으로써 독자적인 사회지위와 특정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된다고 본다. 이와같은 특별한 사회위치를 갖게되는 청소년은 물론 연령에 의해 정해지게되나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특히 미개한 단순사회에서 성인의 지위의 진입을 정하게 되는 육체적 성숙이 오늘과 같은 복합사회에서는 여러 분화된 사회적 성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아동기의 상한 연령과 청소년기의 하한 연령은 성의 성숙이 시작되는 시기, 즉 여자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12~13세, 그리고 남자에 있어서 13~15세로 보지 않고 젊은이들의 대략 반정도가 지속적인 학교사회화로부터 직업세계 내지는 직업교육으로 진입하게 되는 연령, 즉 15~16세의 연령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사

3) Günther, H. (1982) : *Die Verwöhnte Generation? Lebensstile und Weltbilder 14-19 Jähriger*. Hans Martin Schleyer Stiftung, Köln.

4) Allerheck, K. & Hoag, W.J. (1985) : a.a.O

춘기에 큰 비중을 두게되는 심리학자들 역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와 사회적 규정이 성의 성숙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본다.

더욱 어려운 것은 청소년기가 언제 끝나게 되며 성인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육체적인 성장, 즉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신장발달의 완성기-예컨대 여자에 있어서 대략 17세, 남자에 있어서는 19세를 들게 되는데-등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능력, 다시말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성인의 역할, 예컨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자립은 직업에서 필요로하는 교육 및 연수기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연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직장을 갖게되는 사람들에게는 대략 18~21세에서 사회·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수가 있으며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략 24세 전후에야 비로소 사회·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청(소)년 실업상태는 그들이 계속해서 부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

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의 지위에 이르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계속적인 교육으로의 회피 역시 오늘날 이러한 성인의 지위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된다. 지난 몇해 동안 상승된 평균 결혼연령⁵⁾은 젊은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자유의사에서도 아닌 그들이 대학이나 그외의 교육과정에 오래 머물게 됨으로써 오게되는 결과의 반영이라고 본다.

이와같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적 출신과 성에 따라 청소년기의 종료시기는 각각 다르게 된다. 성인의 지위는 특히 독일과 같은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결코 일률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능에 따라 젊은이들에게는 부분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부분적 성숙중 중요한 하나는 일반적으로 수공업기술이나 전문기술자교육, 그리고 그외의 직업교육등을 마침으로써 대개 18세 내지 19세에 이르게되는 직업적 성숙을 들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는 20세 중반에야 비로소 직업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은 직업적 성숙에 의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은 일단 끝나게 된다. 물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법적인 보호권한과 책임은 18세에서 끝나게 되며 국가의 법적인 청소년보호 역시 18세까지만 해당된다.

18세의 법적인 성년과 더불어 젊은이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예를 들

5) 독일에서의 결혼연령은 1974년에서 1984년 사이 여자에 있어서 22.9세에서 24.4세로 올랐고 남자에 있어서는 25.6세에서 27세로 올랐다. Statistisches Bundesamt(Hrsg.)(1986) : *Statistisches Jahrbuch 1986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uttgart und Mainz.

어 그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며, 자가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여가를 즐김에 있어서 어떠한 성인영화도 볼 수 있게 되며 남자에 있어서도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된다.

종교적 성숙은 반면에 매우 일찍 도달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카톨릭(구교)에서는 견진성사 *Firmung* 와 더불어 대략 12세에, 신교에서는 입교식 *Konfirmation* 과 더불어 14~15세에서 종교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령의 확정은 육체적 성숙이 더 중요하고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으로써 청소년기가 비교적 단축되었던 그런 단순사회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각각의 부분적 성숙에 대한 연령들을 모두 동일하게 평준화 하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성숙들은 아직도 동일한 연령으로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일한 명령으로 모든 청소년의 상한 연령을 확정할 경우 젊은이들에게나 그들의 부모 또는 교육책임자들에게 어떤 갈등내지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점은 예를들어 특히 연령적으로 청년기가 20대중반까지 연장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전 청소년들에게 교육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들은 성인과의 이념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입법부에서

는 최근에와서 젊은이들에게 더 일찍 기본적인 공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성년과 결혼적령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등을 3년 앞당긴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다음은 근래에 와서 독일어 사용 국가의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미국에서 유래한 "Post Adolescent"⁶⁾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이는 대략 18세에서 사회적 역할을 소유한 완전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청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Post-Adoleszenz"는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1981년의 경우 19세의 대략 25%와 20~24세 사이의 젊은이들중 대략 16~17%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되어 있다.⁷⁾

이는 다시 말해서 성년(18세)이 된 이후에도 학교, 그중에도 특히 대학을 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물론 이들이 수적으로는 소수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청소년전체를 위해 청소년들이 갖을 수 있는 생활양식을 주도해 나가며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위대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소년연구에서 전기 청소년들에 비해 큰 비중을 갖고 다루어지게 된다.

위에서 다룬 청소년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개념 및 연령규정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시도되어진 것은 없다. 다만 청년심리학에서는 청

6) Keniston, K. (1986) : *Young Radicals*. New York. Schäfer, B. (1982) : *Soziologie des Jugendalters*. Opladen.

7)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 (Hrsg.) (1982) : *Jugend 81. Lebensentwürfe, Alltagskulturen, Zukunftsbilder*. Opladen, p.72

소년들의 심리적·지능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어떤 단계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하튼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연령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특별한 필요성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아주 무시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다음은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게 되는 연령범주에 대한 전문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이것 역시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교적 자주 쓰여지는 개념으로서는 대략 통계 연보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령집단”을 먼저 들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5년내지 10년의 동년배들을 각각 함께 묶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집단의 의미는 물론 공동체적인 유대의식 같은 것을 나타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의미로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서 비공식집단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동년배집단 *peer grou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과정분석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개념인 “동시출생집단 *kohorte*”은 학교나 군복무등과 같은 특정한 제도의 과정을 동일한 시대에 함께 보낸 특정한 연령층을 나타낸다.

그러한 “동시출생집단”들은 돌내지는 그 이상의 시대단면에 대한 의식과 태도등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Panel분석의 도움으로 시대비

교의 목적 등으로 연구되어 진다.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세대 *generation*”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적인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들이 유사하게 형성된 다수의 동시대 출생자들을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Karl Mannheim⁸⁾이 사용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공동적인 역사적 체험이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있어서의 체험을 중요시하게 된다.

III. 청소년연구에 있어서의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사회학자간의 상호작용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주어짐으로써 이는 곧 언론인과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자들의 관심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본래 2차대전후에 이미 독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특히 독일 청소년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재교육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을 비롯한 연합점령군측과 청소년들의 정치적 불만의 표현이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던 독일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특히 정치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족사회주의(나치즘)의 경직된 체제와 이념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

8) Mannheim, K. (1928) : Das Problem der Generation. in: *Kölner Vierteljahrs Heft für Soziologie* 7. p.157-185

의 변동을 갖어올 수 있고 사회발전의 잠재적인 세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고와 자유분방한 행동양식과 더불어 일탈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 납득을 하지 못했음은 물론 중년층 이상의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많은 불안감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

일부 청년들의 이와같은 집단적인 일탈의 정치화 경향과 그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안감은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루어졌다.

이는 물론 시사적이고 세인의 주목을 끄는 것을 시청자에게 전하게 되는 정보매체의 업무 성격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눈에 띄는 청소년들의 퇴각과 저항을 사회문제의 Signal로 봄으로써 알려야 하겠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사명의식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와같이 대중매체(언론인)는 일반적인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의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결국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문제”로서 보아야 된다는 이와같은 합의는 결국 이와 관련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와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앞장을 서게되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사회과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교

육학자들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이에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 가능한 한 신속히 정치인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될 정신과 전문의나 범죄학자등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이나 특히 여론조사 연구소등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정치단체의 구체적인 연구청탁을 받게되지만 그들의 연구조사 결과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경우가 많게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한 사회문제는 매우 빨리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의 정치화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아니면 특정한 부처로 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를 하게되는 여론조사연구소들이 편연적으로 어느정도 편견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연구소들이 각각 다른 위탁자들의 청탁에 의해서 실시한 청소년연구들을 보면 종종 서로 상반되는 결과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상반되는 결과의 내용들은 그 어느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그 여론조사연구소들의 이념적인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념적인 성격의 차이는 스스로 중립적이라고 칭하고 있는 연구소나 학술재단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대학내에 부속되어 있는 청소년관계연구소들도 이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가치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⁹⁾

9) 독일의 정당제도에 있어서 SPD(사민당)와 CDU(기민당)는 역사적으로 이념적인 정당으로서 SPD는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진보주의적 정책을 CDU는 자본주의 내지는 보수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연구소와 연구재단 그리고 매스컴등은 각각 이 두 정당의 이념 및 정책이나 그외의 이념 및 정책과 관련됨으로서 청소년문제를 보는

이와같이 청소년연구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이는 결국은 청소년연구를 위한 개인 및 연구소의 특정한 주제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든다면 정치적 항의, 청년운동, 시민질서에 위배되는 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이비종교에 대한 신앙, 알콜중독, 약물중독 그리고 기타 범죄행위등과 같은 일탈행위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주제들이다.

어쨌든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이와같이 정치인들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언론인과 사회과학자들간의 밀접한 상호작용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서 청소년연구의 주제선정 역시 서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가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접근보다는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IV. 청소년연구의 제도적장치와 청소년 정책

1. 사례 1

청소년연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학제간의 통합된 청소년과학으로 통합·독립되어있지 않다. 노인학gerontologie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독립된 「청소년과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식 jugendkunde”이라는 용어가 종종 지칭·

사용되고 있으나 대개 청소년에 관한 발달심리적, 사회학적 그리고 의학지식을 이분야, 특히 청소년보호, 청소년봉사 등등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및 기타 간행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학문에서는 근래에와서 그 연구 영역에 있어서 매우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연구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는 일부 학문들간의 상호 정보 및 학술교환은 물론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의 청소년연구는 본래 Spranger, E.와 Bühler, C.의 선구적인 기여로서¹⁰⁾ 심리학이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오늘날 심리학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게 됨으로써 오히려 오늘날은 사회학이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더 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적인 지식, 전문용어, 경험 조사방법, 이론적인 접근 등이 청소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여러 학문, 예컨대 범죄학, 정신병(치료)학, 사회교육학 등에서도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컨대 미국사회학에서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낙인이론”은 실천을 중요시하는 청소년정신병(치료)학, 청소년범죄학 그리고 사회교육학 등에서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진단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각도 각각 다르게 된다. 대학교수나 학자들 역시 정당가입이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0) 그들의 청소년에 관한 주 저서로서는

Bühler, ch.(1922) : *Das Seelenleben des Jugendlichen*. Spranger, E.(1924) :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학문들, 예컨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병(치료)학, 범죄학등에서 주로 청소년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철학이나 신학, 역사학, 정치학, 신문방송학 그리고 경제학등도 청소년연구와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학문에서의 청소년연구가 거의 실천적인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청소년정신병(치료)학이나 청소년범죄학, 그리고 사회교육학에서 보면 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실천적인 예방과 통제에 대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심리학과 더불어 응용적인 면에서 지향되어 있던 다른 학문에 기초지식을 제공해야만될 사회학에서까지도 2차대전 이후 조언자로서 정치내지 정치인들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청년내지 학생들의 폭력시위나 정치적 항의등이 격렬하게 일어날 경우 정치인들은 사회학자들로 부터 조언을 구했음으로 청년사회학이 자연 이와같은 현실적 내지는 실천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연구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학문들의 전문화양상과 그들의 주된 연구 관심영역에 대해 간단히 <표 1>로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학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정한 관심에 따라 전문화된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의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의 과정에서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서로의 범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연구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 학문들의 학회 및 학술모임과 활

<표 1>

제학문분야에서의 전문화양상과 청소년연구

| 학문분야 | 전 문 화 | 주 연구 관심 영역 |
|--------------|---------------------|--|
| 사 회 학 | 청년사회학 | 세대갈등, 청년하위문화, 청년학생운동, 정치적 반항, 일탈행위, 청소년범죄, 청소년실업, 가족관계, 동년배집단, 여가행위 |
| 심 리 학 | 청년심리학 | 인성발달, 사춘기, 사회화, 인지발달, 정체성, 육체적 변화, 이성문제, 성문제 |
| (사 회) 교 육 학 | 청소년교육 청소년선도 및 보호 | 학교외 청소년교육, 대중매체 영향, 청소년씨클활동, 청소년연수원교육활동, 정치교육, 청소년여행,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단체활동, 청소년방학지도 |
| 정 신 병 (치 료)학 | 청소년정신병 (치료)학 | 사춘기위기, 사춘기퇴식증, 사춘기우울증, 비사교성, 학교무단결석, 작업태만, 청소년알콜중독, 마약중독, 청소년정신치료, 교육상담 |
| 범 죄 학 | 청소년범죄학 | 청소년범죄, 청소년법, 청소년처벌법, 청소년범죄통계, 마약범죄, 폭력, 제사회화, 집단범죄, 파괴행위 |

동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학술지 및 간행물 등은 어느기관에서 어떤 제도적인 통로를 거쳐 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밝힐 수 있는 것은 총체적인 청소년 연구를 위한 통합된 학회내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분과가 대개 존재한다. 여기에서 정신병(치료)학만이 예외적인 청소년 정신병(치료)학을 위한 「독일청소년정신병(치료)학연합회 *Deutsche Vereinigung für Jugendpsychiatrie*」가 독립적으로 1939년이래 존속하고 있으며 1956년부터는 자체에서 「청소년정신병(치료)학연보 *Jahrbuch für Jugendpsychiatrie*」라는 정기학술간행물을 내고 있다.

청소년에 관한 정기간행물로서의 전문학술지들은 주로 관계실무자들과 그리고 특히 사회사업가, 사회봉사자, 사회교육자들을 위해 발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관계 정기간행물을 들어보면

— 「*Deutsche Tugend*(독일청소년)」, *Zeitschrift für die Jugendarbeit*(청소년사업을 위한 학술지)

이는 청소년사업을 위한 정기간행학술지로서 1953년이래 Weinheim의 *Juventa*¹¹⁾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 「*Unsere Jugend*(우리청소년)」

이는 1949년 이래 münchen에 있는 Ernst Reinhardt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 「*Jugendwohl*(청소년복지)」

이는 1911년이래 Freiburg에 있는 독일 기독교 자선단체인 Caritasverband에서

발행되고 있다.

물론 독일의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비교적 많이 있지만 어떤 제도적인 연구소 내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학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63년에 이미 「독일연방청소년, 가족, 보건성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에 의해서 청소년연구와 그에 대한 자료를 위한 대규모의 전문연구소인 「독일청소년연구소 *Das Deutsche Jugendinstitut*」가 창설됨으로써 이곳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청소년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 연구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청소년·가족·보건성」에 의해서 개설된 청소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연구소라 할 수 있는데 개설이후 범학문적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여러 연구 및 경험조사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 역시 연구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연방정부로부터 「청소년보고」에 대한 과제를 위임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물론 여론조사연구소 *Meinungsbe-fragungsinstitut*가 여러 정치단체, 특히 정당, 국회상임위원회, 연방 및 주정부, 「독일연방청소년·가족·보건성」 그리고 독일연방내무부등에 의한 청탁을 받아 신속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어 진다. 대표적인 청소년관계 여론설문조사

11) 여기서 참고로 언급하면 *Juventa* 출판사는 오직 청소년 연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로는 EMNID, SINUS, PROGNOSE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학술재단 지원하에 일부 설문조사연구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으로서 독일 Shell회사 청소년학술재단¹²⁾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청소년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장기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1953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약 40년에 걸쳐 약 10차에 걸쳐 비교적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청소년조사가 이루어졌다.¹³⁾ 그러므로 이 Shell회사의 청소년학술재단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청소년연구와 조사를 집대성할 경우 2차대전 이후의 청소년들이 보였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등을 시대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은 물론 청소년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 Shell회사의 청소년학술재단에서 실시된 청소년연구 및 조사들을 「청소년연구의 성서」라고 일부 언론에서 칭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 학술재단은 연방정부의 영향이나 기타 이념적, 정치적인 성격을 비교적 적게 갖고 있음으로써 그 연구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겠다.

독일에서의 가장 영향력있는 청소년연구는 연방정부, 즉 「독일연방청소년·가족·보건성」

의 산하기구인 「Das Deutsche Jugendinstitut (독일청소년연구소)」에서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자료가 정리 및 보관되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즉 독일 Shell회사의 청소년학술재단에 의해서 비교적 이념적·정치적인 성격을 띠지않은 가운데 광범위한 청소년연구를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연방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청소년보고서 *Jugendbericht*」¹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보고서는 1965년이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서 「가족에 관한 보고서」, 「직업에 관한 보고서」등과 함께 「사회보고서」중의 일부로서 실행되고 있다.

이 「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7명의 전문학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게 과제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주어진 과제의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어진 사회환경조건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업문제,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문제, 사회하류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문제등이 그 대표적인 주제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청소년보고서」의 목적은 정

12) 독일 Shell회사 청소년 학술재단에서는 우수한 청소년관계 설문조사 연구소에 과제를 위임하여 청소년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해 왔다.

13) 1985년까지 약 10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73년 이전에는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14) 한국의 「청소년백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독일의 「청소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청소년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성된다는 것과 일반적인 통계 자료 제시뿐만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 내지는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점 등이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Lüders, ch.(1989) : Jugendforschung und die Jugendherichterstatlung. in: Markefka, M. & Nave-Herz, R.(Hg): *Handbuch der Familien-und Jugendforschung*. Bd. 2 Jugendforschung. Neuwied, Frankfurt. p.809-820

부 및 의회에서 청소년정책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지만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방향에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보고서」는 청소년관계 전문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인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제출됨으로써 그 자체가 값진 청소년연구의 성과물이 됨과 동시에 이 보고서의 결과 및 문제제기는 그외의 많은 다른 사회과학자들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약 110개의 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2/3에 해당하는 약 80개의 조사가 거의 순수한 학문적인 청소년연구에 속한다는 것을 본다면 이 「청소년보고서」가 독일 청소년연구를 위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¹⁵⁾

「청소년보고서」가 최근에와서 일부 직할시 *Berlin, Hamburg* 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청소년보고서」외에 추가로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모든 주정부에서도 추가로 독자적으로 실시될 전망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청소년관계의 학자 및 실무자들은 더욱 활발하게 청소년연구를 할 수 있는 장과 계기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독일 청소년연구는 많은 면에서 정치와 정부정책등과 밀접한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음은 독일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독일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이라는 개념속에는 청소년과 관계되는 국가 및 정부의 모든정책을 의미하게 되므로 매우 많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겠으나 독일에서의 청소년 정책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분야를 들게 된다.

첫째는 청소년후원정책 *Jugendhilfe*, 둘째는 청소년진흥정책 *Jugendförderungs politik*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정책 *Jugendschutz politik*이다.

1) 청소년후원정책

청소년후원(정책)은 청소년복지법과 그와 상응하는 주정부법의 근거하에 가정과 학교와 직업교육장 외에서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성숙을 위한 청소년교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비와 조치의 넓은 영역에 대한 후원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예를들어 청소년상담, 유치원내지는 탁아소, 청소년 정치교육, 체육과 휴양,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보호원의 교육 및 양육지원, 청소년소송재판 지원, 청소년취업지원, 고아의 보호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소년지원정책이 생기게된 배경이 본래 19세기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극빈자들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체육 및 휴양이나 국제청소년교류등과 같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영역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날도 역시 가정형편이나 환

15) Lüders, ch.(1989) : a.a.O., p.810

〈표 2〉

청소년 지원

| | 1974 | | 1986 | | 증감 |
|-------------------|---------|-------|---------|-------|---------------|
| | 절대인원수 | % | 절대인원수 | % | 1974-1986 (%) |
| 국가공공기관 : | | | | | |
| 시및지방자치 | 64,781 | 29.1 | 94,096 | 31.3 | +45.2 |
| 주 | 10,451 | 4.7 | 11,214 | 3.7 | +7.3 |
| 개인및종교단체 : | | | | | |
| 교회 | 53,191 | 23.9 | 70,238 | 23.4 | +32.0 |
| Caritasverband | 32,595 | 14.6 | 36,492 | 12.2 | +11.9 |
| Diakonisches Werk | 26,181 | 11.8 | 30,210 | 10.1 | +15.3 |
| 독일초교파복지회 | 5,275 | 2.4 | 13,258 | 4.4 | +151.3 |
| 기타자발적복지사업단체 | 7,242 | 3.3 | 11,143 | 3.7 | +53.9 |
| 법인파법인연합회 | 13,161 | 5.9 | 24,212 | 8.1 | +84.0 |
| 청년회 및 청년단체 | 4,365 | 2.0 | 3,817 | 1.3 | -12.5 |
| 개인사업가 | 5,432 | 2.4 | 5,612 | 1.9 | +3.3 |
| 계 | 222,674 | 100.0 | 300,292 | 100.0 | +34.9 |

자료 : 독일연방통계국 *Statistisches Bundesamt* (1988, 28ff)

경이 좋지 못한 하류 및 빈민계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지원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각주에서부터 말단지방자치단위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청 *jugendamt*」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법에 의해 주로 청소년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가 공공기구이지만 청소년지원은 국가정부차원이외의 자발적인 여러사설 및 종교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이 단체들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도 및 계획의 상호 협조적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청소년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과 개인 및 종교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각분야별 인원수와 전체숫자에 대비한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청소년지원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국가공공기관보다도 교회와 개인 및 종교단체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지원사업이 역사적으로 본래 빈민에 대한 기독교적 구호사업으로부터 출발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청소년진흥정책

이 정책이 갖는 기본의미는 앞에서 언급된 청소년지원사업의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진흥책은 국가공공기관에서 맡게되는데 그와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

〈표 3〉

독일연방청소년계획에 의한 중요진흥영역의 발달현황(1970~1985)

| 진흥영역 : | 1970 | | 1975 | | 1980 | | 1985 | |
|-------------|-------|--------------|-------|--------------|--------|--------------|--------|--------------|
| | % | 1970 =100 | % | 1970 =100 | (%) | 1970 =100 | % | 1970 =100 |
| 청소년 사회 사업 | 12.8 | 100 | 19.2 | 248 | 33.3 | 601 | 26.6 | 554 |
| 국제 청소년 사업 | 30.2 | 100 | 22.6 | 123 | 18.3 | 140 | 17.8 | 157 |
| 중앙 청소년 단체 | 21.9 | 100 | 18.3 | 138 | 15.5 | 163 | 16.1 | 196 |
| 정치 교육 | 17.1 | 100 | 14.6 | 141 | 11.8 | 159 | 13.0 | 203 |
| 문화 교육 | 5.0 | 100 | 4.8 | 157 | 4.9 | 227 | 4.9 | 262 |
| 사회 교육 | 2.7 | 100 | 3.2 | 194 | 3.4 | 287 | 4.7 | 455 |
| 기 타 | 10.3 | 100 | 17.3 | 275 | 13.1 | 292 | 13.6 | 351 |
| 총 계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 단위 : 백만 마르크 | 50.93 | | 83.71 | | 117.17 | | 135.52 | |
| 1970=100 | | 100 | | 164 | | 230 | | 267 |

자료 : Wuggenig, u(1989).p.843

와 운영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청소년진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진흥정책은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청소년계획과 주정부단위에서는 주청소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의 지방자치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책을 직접 수립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청소년진흥정책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사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세우는 청소년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청소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1970년에서부터 1985년까지의 독일연방청소년계획에 의한 주요진흥정책의 발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표 3>과 같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청소년진흥계획의 기

본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동은 ;

첫째 : 청소년사회사업에 대한 진흥사업의 높은 증가를 들 수 있고(1970 : 12.8% → 1985 : 26.6%)

둘째 : 국제청소년사업의 높은 감소를 들 수 있겠으며(1970 : 30.2% → 1985 : 17.8%)

셋째 : 중앙청소년단체진흥사업의 비교적 높은 감소를 들 수 있겠다.

3)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이야말로 청소년정책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있었던 아동의 노동에 대한 보호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 및 아동의 노동보호가 노동정책에 속하는 반면에 유해사회환경의 위험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오늘날 청소년정책에 속한다할 수 있다.

이와같은 법적인 청소년보호는 기본적으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라는 기

본원칙에 근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소 및 업소와 대중매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규범 및 조치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오락실이나 도박장, 극장, 비디오상점, 유흥가 등의 출입제한 및 금지와 알콜(주류), 담배, 불량인쇄매체, 음반, 유해비디오 필름 등의 판매 및 구매의 제한 및 금지등을 들 수 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대중매체분야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예를들어 전자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불량 비디오필름과 테이프, 그리고 computer의 software의 확대로 인해서 제공되는 많은 상품들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들을 받고 있음으로서 오늘날 관계자 및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성격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 다음기회에 독일 청소년정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소개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앞에서도 수차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및 정치인들과의 밀접한 상호작용관계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이고도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경험적이고도 실천적인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연구내용 및 경향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그 어느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경향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1945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경향은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대략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연구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업적 및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첫째는 독일 Shell회사의 청소년학술재단 주관하에 거의 40년동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 및 조사자료이고, 둘째는 1945년 이래 여러 상이한 개별학자 및 연구소에서 실시한 청소년 연구 및 조사자료이며, 셋째는 국회의 위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청소년보고서」의 연구 및 조사자료를 들 수 있다.

위의 세 연구집단들의 연구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경향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연구의 주관심은 공통적으로 우선 젊은이들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의 문제, 특히 직장으로서의 통합 및 적응문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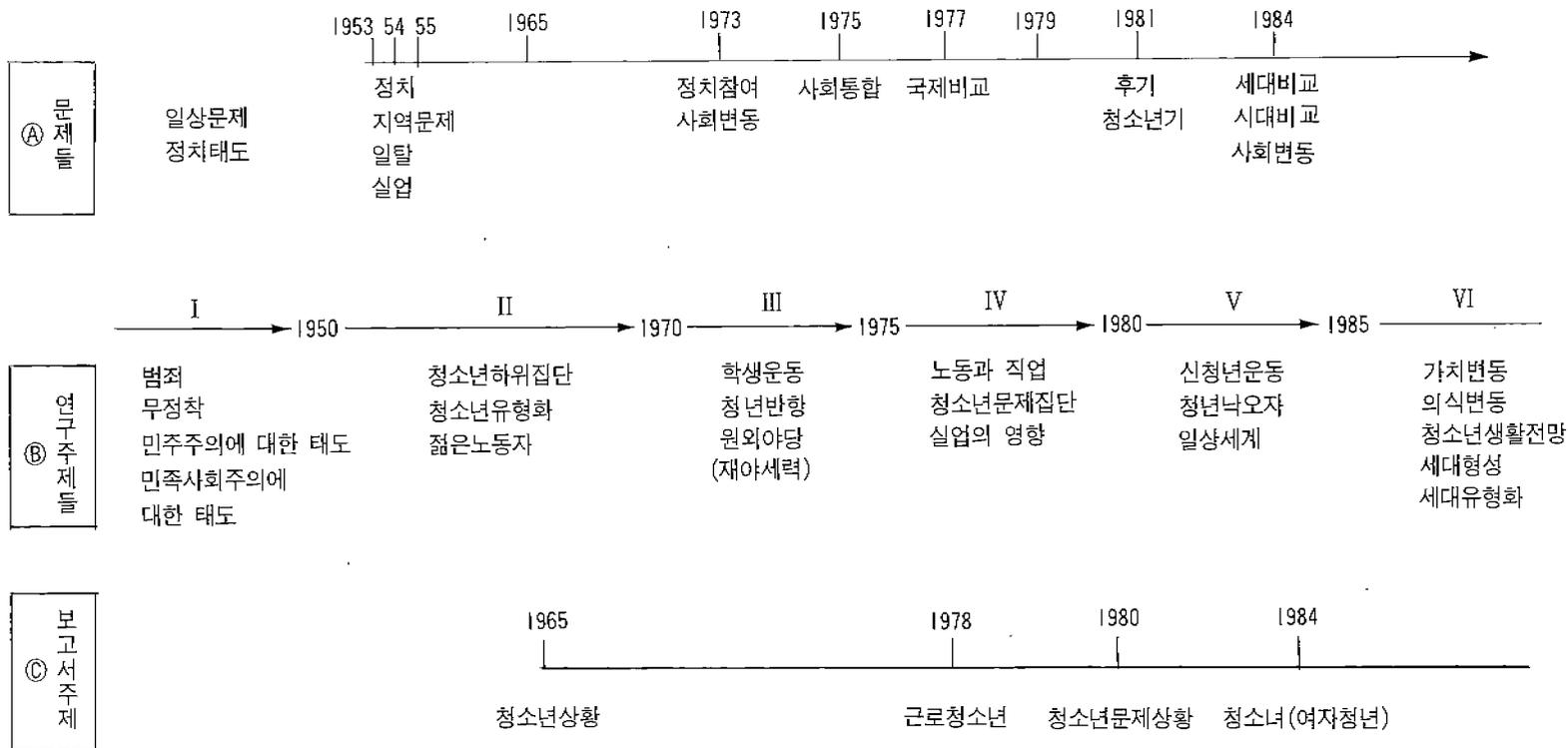
1945년 직후에는 특히 나치즘의 비판과 관계된 정치태도, 즉 민주주의 및 민족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조사와 민주시민교육, 특히 젊은세대의 민주화과정과 정치통합에 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갖었다.

1950년대에는 청소년의 실업문제, 취업난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일탈 및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초 및 중반에는 청년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에 관계된 학생운동 및 청년 반항의

< 표 4 >

독일청소년연구의 시대별 관심주제에 따른 개관



주 ①: 독일 Shell회사 청소년학술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내용에 근거

②: 개별학자 및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내용근거

③: 독일국회에서 실시한 보고서내용에 근거

자료: Markefka, M. (1989). p.31

실태와 원인, 그리고 정치통합 및 사회화에 관한 조사 및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략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일상생활 문화의 창조자로서 아니면 청년문화적인 표현의 소유자로서 주의를 끄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경향을 나타냈다.

비교적 최근에는 사회변동이나 사회안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대내지는 세대비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의 청소년연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대부분 연구대상이 되든가 아니면 여자들과 함께 고려되는 정도가 보통이었으나 1984년의 국회 청소년보고서에는 여자들만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1945년 이후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감소 경향보다는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외에도 Hübner-Funk¹⁶⁾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다음과 같은 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 청소년에 대한 연구활동이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5년에서 1983년까지의 경험적 청소년조사연구에 관한 프로젝트의 수가 150전에서 270건으로 늘어 약 80%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 청소년에 대한 연구관심의 폭이 매우 넓다고 지적한다. 예를들어 일탈문제, 실업,

노동 및 직업, 청년운동, 의식 및 가치변동, 세대 및 국제비교 등등 한국에서의 청소년연구가 주로 청소년일탈 및 범죄문제에 편향되어 있는 것에 비한다면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관심영역이 무척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청소년의 문제상황과 관계되는 연구 및 조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과 노동시장, 일탈특수문제(특히 독일거주 외국청소년 문제)등은 그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끝으로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소년연구를 여러 영역기준에 의거 체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청소년연구에 대한 영역별 체계적인 정리는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 및 조사활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어본다면¹⁷⁾ 다음과 같다.

- ① 여러 중요주제들로 나누어 청소년에 관한 일반지식과 정보를 집약한 연구논문 및 저서(Schäfers, B., 1982; SINUS-Institut, 1984; Hurrelmann, et.al. 1985; Reimann, H./Reimann, H., 1987; Deutsches Jugendinstitut, 1985; Krüger, H.(Hg.), 1988)
- ②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연구(Cremer, G., 1983; Fuchs/Zinnecker, 1985; Bertram, H., 1987; Kabel, et. al., 1987; Neidhardt, F., 1987)

16) Hübner-funk, S.(1985) : *Youth Research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5-1985. Empirical Projects.* Deutsches Jugendinstitut. München.

17) Markefka, M.(1989) : *a.a.O.*, p.35

- ③ 청소년보고서(Hornstein, W., 1982; Lüders, ch., 1989)
- ④ 청소년관계참고문헌목록(Deutsches Jugendinstitut, 1968~1975; Cremer, G., 1984;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 Bd. 5, 1985)
- ⑤ 경험조사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소개(Kreutz, H., 1973; Rosenmayr/Allerbeck, 1979; Cremer, G. 1984; Hübner-Funk, 1985)
- ⑥ 청소년연구에 종사하는 학자, 연구원 및 연구소에 대한 정보 및 소개(Hübner-Funk, 1985)

VI. 요약 및 결론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느 다른 나라에서 보다는 많은 사회과학자, 특히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밀접한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 및 정치인들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그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청소년부)나 정치인(국회 및 정당)들은 그들의 청소년에 대한 특정한 관심주제에 대해서 연구소나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 및 조사를 하도록 위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일찌기 「연방청소년·가족·보건성」이 제도화 운영되고 그의 산하에 「독일청소년연구소」를 두어 청소년연구를 제도적으로 체계화, 정착시켰다는 점도 청소년연구에 큰 기여를 한 점이다.

이외에도 독일 대기업들의 청소년연구에 대한 지원등은 독일 청소년연구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Shell회사의 청소년 학술재단에서의 40년에 걸친 지속적인 청소년연구는 독일청소년연구의 성서라 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동향 및 내용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우선 연구대상 및 주제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히 1945년 직후의 나치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젊은 세대들의 민주화과정과 정치통합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1950년대의 청년실업문제, 일탈문제, 1970년대에는 청년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에 관계된 학생운동 및 청년항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및 조사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청소년들의 여가문제, 세대비교, 가치 및 의식변동에 따른 사회변동문제등을 다룸으로써 한국에서의 청소년연구가 주로 일탈 및 범죄문제에 편향되어 있는 것에 비한다면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을 든다면 독일 청소년연구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천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청소년연구가 지금까지 정부와 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연구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비한다면 한국에서의 청소년연구에 대한 정부 및 정치인들의 관심과 학자들의 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 미약하다는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화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사회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의 학술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폭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Allerbeck, K. & Hoag, W, J.(1985): *Jugend ohne Zukunft?* München.
- Bertram, H.(1987): *Jugend heute*. München
- Cremer, G.(1983): *Sozialisations-und Jugendforschung. 1970-1982. Eine Literaturdokumentation*, Weinheim
- (1984): *Jugendliche Subkulturen. Eine Literatur-dokumentation* München.
- Deutsches Jugendinstitut(1985): *Immer diese Jugend. Eine zeitgeschichtliches Mosaik von 1945 bis heute*. München
- Fuchs, W. & Zinnecker, J.(1985): Nachkriegsjugend und Jugend heute. in: *Zeitschrift für Sozialisationsforschung und Erziehungssoziologie. 5 Jg.* Hurrelmann, k. et. al. (198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weinheim/München.
- Hornstein, w.(1982): Jugendprobleme, Jugendforschung und Politisches handeln. *Das parlament B 3/82*.
- Hübner-Funk, s.(1985): Youth Research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5-1985. Institutions-Researchers. *Manuskript des Deutschen Jugendinstitut. e.v. München*.
- (1985): Youth Research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5-1985. Empirical Projects. *Manuskript des deutschen Jugendinstitut. e.v. München*.
-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Hrsg.) (1985): *Jugendliche und Erwachsene 85. Generationen im vergleich*. 5 Bde Leverkusen.
- Kabel, R. et. al.(1987): *Jugend der 80er Jahre im Spiegel von Umfragen*, Berlin.
- Kreutz, H.(1973): *Youth and Social Change. A Methodological Review of European Youth Research. 1960-1970*. Wien
- Krüger, H.(Hrsg.) (1988): *Handbuch der Jugendforschung*. Opladen.
- Lüders, ch.(1989): Jugendforschung und die Jugendberichterstattung. in: Markefka, M. & Nave-Herz, R.(Hg.): *Handbuch der Familien-und Jugendforschung*. Bd.2 Jugendforschung Neuwied & Frankfurt.
- Markefka, M. & Nave-Herz, R. (Hg.) (1989): *Handbuch der familien-und Jugendforschung*. Bd.2. Jugendforschung. Neuwied & Frankfurt.
- Markefka, M.(1989): Jugend und Jugend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in: Markefka, M. & Nave-Herz, R.(Hg.): *Handbuch*

- der Familien-und Jugendforschung. Bd.2*
Jugendforschung. neuwied & frankfurt.
- Neidhardt, F.(1987): *Jugend im Spiegel von*
Umfrageforschung und Statistik. Köln.
- Reimann, He. & Reimann. Ho.(1987): *Die*
Jugend. Opladen.
- Rosenmayr, L. & Allerbeck, K.(1979): Youth
and society. *current Sociologie*, vol.27.
no2/3.
- Schäfers, B.(1982): *Soziologie des Jugendalters.*
Eine Einführung. Opladen.
- SINUS-Institut(1984): *Jugendforschung in der*
BRD. Opladen.
- Statistisches Bundesamt(1988): *Einrichtungen*
und tätige Personen in der Jugendhilfe
1986. Stuttgart, Mainz.
- Wuggening, u.(1989): Jugendhilfe, Jugendp-
flege und Jugendfürsorge. in: Markefka,
M. & Nave-Herz, R. (Hg.): *Handbuch der*
Familien-und Jugendforschung. Bd.2.
Jugendforschung. Neuwied und Frankfurt.